

01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? 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롱스터(lobster), 시그널(signal), 지그재그(zigzag)
- ② 재즈(jazz), 마니아(mania), 브리지(bridge)
- ③ 보트(boat), 스위치(switch), 인디안(Indian)
- ④ 유니온(union), 톱 클래스(top class), 휘슬(whistle)

0 외래어 표기

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를 바르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.
 ① 로브스터/랍스터, ③ 스위치, 인디언, ④ 유니언, 톱클래스

답 ②

02 다음 중 문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? 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問征夫以前路 ② 子將安之
- ③ 誰能與我同 ④ 孰爲好學

0 문장의 종류

①은 평서문, 나머지는 의문문이다.
 ① 문정부이전로: 묻다+나그네에게+앞길을
 ② 자장안지: 그때는+장차 어디로 가려 하는가?
 ③ 수능여아동: 누가+나와 더불어 갈을 수 있을까?
 ④ 숙위호학: 누가+좋아하는가?+배움을

답 ①

03 다음 중 비표준어가 포함된 것은? 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마을-마실 ② 예쁘다-이쁘다
- ③ 새초롬하다-새치름하다 ④ 부스스하다-부시시하다

0 표준어

④의 '부시시하다'는 표준어가 아니다.
 ①의 '마실'과 ②의 '이쁘다'는 2015년에 표준어로 추가되었고, ③의 '새초롬하다'는 2011년에 표준어로 추가되었다.

답 ④

0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평음, 경음, 유기음과 같은 삼중 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이다.
- ②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ㄱ, ㄴ, ㄷ, ㄹ도 포함된다.
- ③ ㅈ, ㅊ, ㅉ을 발음할 때에는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된다.
- ④ ㅏ와 ㅑ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각각 [j](혹은 [y]), [w]이다.

0 국어의 특징

① 평음(예사소리), 경음(된소리), 유기음(거센소리)과 같은 삼중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파찰음이다. 마찰음은 '예사소리'와 '된소리'의 대립만 나타난다. 참고로 유기음(有氣音)은 숨이 거세게 나오는 파열음을 말한다.
 ② 'ㄱ, ㄴ, ㄷ, ㄹ'은 단모음으로 분류한다.
 ③ 'ㅈ, ㅊ, ㅉ'은 파열음의 특징과 파찰음의 특징을 모두 갖는다. 그래서 '파찰음'이라고 한다.
 ④ 'ㄷ, ㄱ, ㄷ'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에서 'ㄷ, ㄱ, ㄷ'를 반모음이라고 한다.

답 ①

05 <보기>는 「한글맞춤법」 제30항 사이시옷 표기의 일부이다.

㉠, ㉡, ㉢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? 해 61

특별시 7급

<보기>

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.
 1.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
 (1)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
 고랫재 ㄱ뱃 (㉠)
 (2) 뒷말의 첫소리 ㄴ,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
 뒗머리 아랫마을 (㉡)
 (3)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
 도리꺄열 뒗웃 (㉢)

- ① 못자리-뫼나물-두렛일 ② 쳇바퀴-잇몸-훗일
- ③ 잇자국-뒗마루-나뫼잇 ④ 사갓밥-갓날-예삿일

0 사잇소리현상의 사례

'1'에 제시된 조건은 '순 우리말'이다. 그런데 ②의 훗일(後-일), ③의 뒗마루(退-마루), ④의 사갓밥(使者-밥)은 한자어와 우리말의 결합이다. 따라서 답이 될 수 없다.

답 ①

06 다음 중 「한글맞춤법」에 맞는 문장은? 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인삿말을 쓰느라 밤을 새웠다.
- ②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률이 줄고 있다.
- ③ 생각치도 않은 반응 때문에 적잖이 놀랐다.
- ④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0 맞춤법

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바르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.
 ① 인사말, ② 흡연율, ③ 생각지도

답 ④

07 다음 중 피동과 사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동사에 따라서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다.
- ② 사동 접사는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.
- ③ 사동문과 피동문 각각에 대응하는 주동문과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.
- ④ 일반적으로 단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는 물론 간접 행위도 나타내는데, 장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를 나타낸다.

0 국어의 특징 - 사동과 피동

④ 단형 사동은 '어근+사동접미사'의 형태, 장형 사동은 '어간+게 하다'의 형태를 말한다. 단형 사동은 대체로 사동주의 '직접 행위'와 '간접 행위'를 모두 나타내며, 장형 사동은 주로 사동주의 '간접 행위'를 나타낸다.

답 ④

0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? 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잠이 모자라서 늘 피곤하다.
- ② 사업을 하기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.
- ③ 어느새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는다.
- ④ 한 마리였던 돼지가 지금은 열 마리로 늘었다.

0 품사 - 동사와 형용사

용언의 어간 뒤에 '는다/니다'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, 안 되면 '늘다, 말다, 가지다, (아/어, 고)+있다, 나다, 맞다, 계시다'를 제외하고는 형용사이다.
 ②는 '는다/니다'가 붙을 수 없으므로 형용사, 나머지는 붙을 수 있으므로 '동사'이다.

답 ②

09 다음 중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'△'은 '봉'보다는 오래 쓰였지만 16세기 후반에 가서는 거의 사라졌다.
- ② 대략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말한다.
- ③ 중세국어 전기에 새로운 주격 조사 '가'가 사용 폭을 넓혀 갔다.
- ④ 중세국어의 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몽골어가 많이 유입되었다.

0 중세국어의 특징

③ 중세후기에는 주격조사로 '이'가 주로 쓰였다. '가'가 주격조사로 쓰이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, 즉 근대국어에 와서이다.
 ① 순경음은 15세기 세조 이후 소멸했고, '△'은 16세기 말, 17세기 초반부터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.
 ② 중세국어는 '고려시대 국어'와 '조선 전기 국어'를 아울러 가리킨다.
 ④ 고려시대 원간섭기에 나타났던 어휘상의 변화이다.

답 ③

10 다음 중 국어의 문장성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?

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㉠ 주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.
- ㉡ 주어, 서술어, 목적어, 부사어는 주성분에 속한다.
- ㉢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. 의 문장성분은 주어, 부사어, 서술어이다.
- ㉣ 부사어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.

- ㉠ 체언에 호격조사가 결합된 형태는 독립어에 해당된다.
- ㉡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될 수 있지만 목적어는 생략될 수 없다.

- ① ㉠, ㉡, ㉢
- ② ㉡, ㉢, ㉣
- ③ ㉢, ㉣, ㉤
- ④ ㉣, ㉤, ㉥

0 문장성분

- ㉠ 어떤 문장의 필수 성분의 개수는 주어의 성격이 아니라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.
- ㉡ 주성분에는 '주어, 목적어, 보어, 서술어'가 속한다.
- ㉢ 문장에서 목적어도 생략할 수 있다.

답 ③

11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?

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.
- ② 머리를 숙여 청하오니
- ③ 잇따라 불러들였다.
- ④ 아껴 쓰는 사람이 되자.

0 형태소의 개수

- ①은 12개, ② ④는 8개, ③은 9개이다.
- ① 떠나(다)+아+가(다)+았+던/배+가/돌(다)+아+오(다)+았+다
- ② 머리+를/숙(다)+이+어/請+하+오니
- ③ 잇(다)+따르(다)+아/부르(다)+어+들(다)+이+있+다
- ④ 아껴(다)+어/쓰(다)+는/사람+이/되(다)+자

답 ①

12 다음 중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못 제시한 것은?

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우정은 마치 보석과도 같다.→두 자리 서술어
- ② 나 엿저녁에 시험 공부로 녹초가 됐어.→두 자리 서술어
- ③ 철수의 생각은 나와는 아주 달라.→세 자리 서술어
- ④ 원영이가 길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어.→세 자리 서술어

0 서술어 자릿수

- ③ '달라'는 '누가(주어)'와 '누구와(부사어)'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.
- ① 무엇이(주어)+무엇과(부사어)+같다
- ② 누가(주어)+무엇이(보어)+되다
- ④ 누가(주어)+무엇을(목적어)+어디에(부사어)+넣다

답 ③

1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?

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철수와 영수는 고등학교 친구다. 그러나 졸업 후 함께 사업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사이가 서먹하게 되었다. 지금도 동네에서 오며 가며 얼굴은 보지만 서로 모르는 척 지나간다.

- ① 정건하다
- ② 버림하다
- ③ 투미하다
- ④ 쇠락하다

0 순우리말

- ② "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 사이가 뜨다."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은 ②의 '버림하다'이다. '버림하다'는 물건의 틈이 꼭 맞지 않고 조금 벌어져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.
- ① 정건하다: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여 더부룩하고 그득한 느낌이 있다.
- ③ 투미하다: 어리석고 둔하다.
- ④ 쇠락(灑落/洒落)하다: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하다.

답 ②

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?

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여행 도중 틈틈이 수상을 기록하여 문집을 냈다. - 首想
- ② 그가 사주, 관상, 수상에 능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운명은 알지 못했다. - 手象
- ③ 어쩐지 수상하다 했더니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던 사람이었다. - 樹狀
- ④ 그는 지원자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뽑혔다. - 受賞

0 한자 쓰기

- ① 隨想: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
- ② 手相: 손금
- ③ 殊常: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러움
- ④ 受賞: 상을 받음

따라서 문맥에 맞게 한자 표기를 바르게 한 것은 ④이다.

답 ④

15 다음 중 <보기>의 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?

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<보기>

새말은 바로 新村이나 新里, 新洞이 될 것이다.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새말이 있다. 특정 마을에서 분파되어 나오면 거기가 새말(새마을)이 되는 셈이다. 새말과 비슷한 또 다른 마을 이름으로 新基, 혹은 新基村이 있다. 新基라 적고 새터라 읽었으며, 新基村이라 적고 새터말이라 읽었다는 것이다.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이다. 서울 지하철(5~8호선) 역명은 이러한 석독(釋讀)의 정신과 관계된다. 성북구 석관동(石串洞)의 돌고지, 은평구 신사동(新寺洞)의 새절, 서대문구 아현동(兒峴洞)의 애오개 등이 유명하다.

- ① 성옥: 漢陽(한양)이라 적고 서울로 읽었을 확률이 높겠군.
- ② 수연: 모래내라는 지명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석독하면 사천(沙川)이 되겠군.
- ③ 경아: 大田(대전)이라 적고 한밭으로 읽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, 한밭이 바로 석독이군.
- ④ 재화: 광해군 때의 상궁 김개시(金介屎)가 있었는데 그 개시가 바로 개똥이야. 개똥은 음독자로 이해해야 하는군.

0 글의 전개 방식 - 예시

- 주어진 글을 정리해 보자.
- 새말 석독(釋讀) - 한자어→한자의 뜻으로 읽음
- 이와 같은 주제에 잘 어울리는 사례는 ③이다. ③도 '大田'이라는 한자어를 '한밭'이라고 하여 뜻으로 읽고 있다.
- ① '漢陽'을 석독하면 '물빛' 정도가 될 것이다.
- ② '모래내'의 석독이 '沙川'이 아니라, '沙川'의 석독이 '모래내'이다.
- ④ '介屎'를 '개똥'이라고 읽었다면 '介'는 음독한 것이고, '屎'는 훈독한 것이다.

답 ③

16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끼리 묶인 것은?

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소나무, 빛나다, 살코기, 나가다
- ② 접칼, 굽주리다, 부슬비, 검붉다
- ③ 감발, 목발, 오가다, 새해
- ④ 큰집, 늦더위, 안팎, 출랑새

0 비통사적 합성어

- ①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.
- ②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.
- ③ '감발, 목발, 오가다'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.
- ④ '늦더위, 출랑새'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.

답 ②

17 다음 중 「표준어 규정」에 맞게 발음한 문장은?

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- ① 불법[불법]으로 고개[고까]의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고개[고까]도로로 도망치고 있다.
- ② 부정한 사건이 물히지[무치지] 않도록 날날이[날나치] 밝혀 부패가 끝이[꼬치] 나도록 해야 한다.
- ③ 꽃 위[꼬 뒤]에 있는[인는] 나비를 잡기 위해 나비 날개의 끝을[꼬출] 잡으려고 했다.
- ④ 부자[부:자]간에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 모자[모:자]가 들러 서로 모자[모:자]를 선물했다.

0 표준 발음

- ② '날날이'는 [날나치]로 발음해야 한다.
- ③ '끝을'은 [꼬출]로 발음해야 한다.
- ④ '父子'는 [부:자], '母子'는 [모:자], '冒子'는 [모:자]로 발음해야 한다. 장단에 유의해야 한다.

답 ①

18 다음 중 혼종어로만 나열된 것은?

• 16. 서울특별시 7급

혼종어(混種語)[혼: - -] 「명사」 『언어』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

- ① 각각, 무진장, 유아무야 ② 과연, 급기야, 막무가내
- ③ 의자, 도대체, 언감생심 ④ 양파, 고자질, 가지각색

01 설명에 맞는 사례

주어진 뜻풀이에 따르면 '혼종어'의 조건 중, 핵심은 '서로 다른 언어'이다.
 ④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.
 '洋(한자어)+파(우리말)', '告者(한자어)+질(우리말)', '가지(우리말)+各色(한자어)'
 그런데 ① ② ③은 모두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이다. 따라서 이들은 답이 될 수 없다.
 ① 各各, 無盡藏, 有耶無耶
 ② 果然, 及其也, 莫無可奈
 ③ 椅子, 都大體, 焉敢生心

답 ④

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한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? • 16세음특
 번시 7급

중독을 떨쳐버리지 않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? 좀 더 일반적인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나는 갓 볶아낸 원두를 갈아서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시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. 그런데 가끔 원두가 떨어진 걸 깜빡할 때도 있다.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두통이 생기고, 화가 나고, 집중도 못한다.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금단현상을 느끼는 커피 중독자인 것이다.

- ① 中毒-決定-集中-禁斷 ② 重毒-決定-執中-錦端
- ③ 中毒-結定-集中-禁斷 ④ 重毒-結定-執中-錦端

01 한자어 쓰기

차례대로 문맥에 어울리는 한자를 표기하면 ①의 '中毒-決定-集中-禁斷'와 같다.
 ㉠ 毒: 독(독)
 ㉡ 決: 결정할(결), 結: 맺을(결)
 ㉢ 集: 모을(집), 執: 잡을(집)
 ㉣ 禁: 금할(금), 錦: 비단(금)
 ㉤ 斷: 끊을(단), 端: 끝(단)

답 ①

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현대어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? • 16.서
 음특번시 7급

죽식이 能히 밥 먹거든 그르쥬디 올흔손으로써 헝게 헝며 能히 말
 헝거든 스나히는 썰리 딤답헝고 겨집은 느즈기 딤답게 헝며 스나히
 썩는 갓츠로 헝고 겨집의 썩는 실로 홀디니라

- ① 그르쥬디: 가르치되 ② 느즈기: 천천히
- ③ 갓츠로: 가장자리로 ④ 홀디니라: 할 것이니라

01 소학언해 해석하기

'갓츠로'는 '가죽으로'의 뜻이다. "겨집의 썩는 실로"라는 구절에서 겨집의 썩는 '실'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그렇다면 '스나히'도 어떤 재료에 해당되는 대상과 호응할 것이다. 그러나 '가장자리'는 위치 개념이지, 재료 개념이 아니므로 바른 해석이 아님을 알 수 있다.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'썰리'의 상대어가 '느즈기'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.

답 ③